|  |
| --- |
| 『태평천하』의 감정 유형 정량화를 통한 작가의 풍자 전략 분석 |
|  |
| 정하헌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e-mail: jeonghaheon@gmail.com |
|  |
| Analyzing the Author’s Satirical Strategy in  『태평천하』through Quantified Sentiment Typology |
|  |
| Ha heon jung  Kookmin University |
|  |
| 요  약  본 연구는 채만식의 풍자소설 『태평천하』를 대상으로, 문장 단위 감정유형 태깅과 시점별 분석을 통해 작가의 풍자 전략과 정서 흐름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소 분석, 감정유형 사전 기반 태깅, TF-IDF 기반 핵심어 추출, 문장형태 구분, 의미 클러스터링(t-SNE + KMeans)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작품을 네 개의 시점으로 구분하여, 각 시점별 감정 분포와 문체 특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점별로 반어, 조롱, 과장 등의 감정 유형 사용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작가의 풍자 전략이 시점의 전개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심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정량 분석 방법론을 확장하고, 감정 기반 서사 구조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
|  |

**1. 서론/관련연구**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일제강점기 말기 몰락하는 양반 가문을 중심으로, 조선 상류 계층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현실에 대한 무관심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작가는 표면상 평온한 일상을 묘사하면서도, 그 이면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반어와 과장, 조롱 등의 수사로 드러내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러한 풍자적 문체는 독자에게 복합적인 해석을 요구하며, 텍스트의 이중성과 반어적 표현이 문학적 난해함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참으로 태평한 세상입니다”와 같은 표현은 표면상 긍정적으로 보이나, 당대 혼란스러운 현실을 고려하면 냉소적 반어로 해석해야 하는 복합성이 존재한다.

박수빈(2019)은 채만식이 후기 작품에서 ‘자기풍자’ 전략을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판소리식 직접화법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보았다. 이는 『태평천하』에서의 서술 방식과 감정 표현이 단순히 ‘비판적’인 것 이상의 복합적 정서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체적 난점을 계량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해석하고자 하며, 특히 풍자 문학의 다층 감정 구조를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태평천하의 풍자적 문체 특성과 분석 타깃**

『태평천하』는 문체적 차원에서 일반적인 사실주의 소설과 구별되는 여러 특성을 지닌다. 가장 뚜렷한 특징은 구어체와 대화 중심 구성, 그리고 반어·조롱·과장 등의 수사 기법이 인물의 말투와 서술자의 어조를 통해 중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등장인물의 대사와 작가의 서술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띠지만, 문맥을 해석하면 비판적 풍자 또는 냉소적 조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참으로 태평한 세상입니다”와 같은 문장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 긍정적이나, 시대 상황과 결합될 때 작가의 비꼬는 의도가 드러난다.

이처럼 단어 수준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문맥과 어조, 표현 방식의 조합으로 전달되는 복합 정서는 기존 감정 분석 프레임워크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풍자적 문체는 감정 유형이 단일하지 않으며, 문장 하나에 반어와 과장이 공존하거나, 조롱과 감탄이 교차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풍자적 문체의 계층 구조를 감정유형, 문장형태, 시점 분리 등의 기준을 통해 계량화하고자 하며, 이는 풍자 문학 해석에서 새로운 정량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는 기초가 된다.

**1.3관련 선행연구 정리**

최근 문학 텍스트에 대한 감정 분석 연구는 자연어처리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감정 어휘 사전을 활용한 연구들은 텍스트에 포함된 감정 단어를 기반으로 등장인물의 정서를 분류하고, 서사 구조와 감정 흐름 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데 성과를 보였다. 이 방식은 기존의 주관적 라벨링보다 더 일관되고 재현 가능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또한, LSTM, BERT와 같은 딥러닝 기반 모델을 활용한 감정 예측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대중 서사나 영화 대사, 웹툰 원작 드라마 등에서 이러한 모델은 문맥 기반 감정 분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감정 딥러닝 모델의 활용성을 입증하고 있다 [3,6].

그러나 기존 연구 대부분은 긍정/부정/중립의 단순 감정 분류 체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반어, 조롱, 과장, 감탄과 같은 복합적이고 풍자적인 감정 표현을 분류하거나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근대 풍자문학과 같이 이중적 어조와 문맥 기반 해석이 필수적인 장르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풍자 문학 텍스트에 특화된 5가지 감정유형(반어, 과장, 대조, 조롱, 감탄)을 정의하고, 문맥·표현 방식·문장 구조까지 고려하는 다층적 분석 체계를 통해 기존 감정 분석 프레임워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 텍스트, 특히 풍자적 서사의 정량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분석 방법론**

**2.1분석 대상 텍스트 및 전처리 과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채만식의 풍자소설 『태평천하』 원문 텍스트이며, 해당 텍스트는 UTF-8 인코딩 형식의 .txt 파일로 수집되었다. 작품의 텍스트는 문장 단위 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쳐 구조화되었다.

먼저 Python의 정규표현식을 활용하여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종결 부호를 기준으로 1차 문장 분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쉼표(,)로 이어지는 복합문이나, 구어체 문장의 특성상 표현 단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쉼표 기반 추가 분할 규칙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분할된 문장은 pandas를 활용하여 DataFrame 형식으로 저장되었으며, 각 문장에 고유 번호(ID)를 부여한 뒤 .csv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최종적으로 약 5500개 이상의 문장이 확보되었고, 이는 형태소 분석 및 감정유형 태깅의 기본 단위로 활용되었다.

본 전처리 과정은 텍스트의 원문 구조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자연어 처리 기법의 적용에 적합한 분석 단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2 형태소 분석 및 품사 기반 정제**

문장 분리 이후, 각 문장에 포함된 핵심 어휘를 추출하기 위해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분석기는 Python의 konlpy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Okt(Open Korean Text)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 분석기는 SNS나 블로그와 같은 구어체 텍스트 처리에 강점을 가지며, 구어적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태평천하』의 문체 특성과도 잘 부합한다.

분석 설정으로는 stem=True 옵션을 적용하여 어말어미 등을 기본형으로 정규화하였으며, 품사 필터링 기준으로는 명사, 동사, 형용사만을 추출하였다. 반면, 조사, 부사, 감탄사, 기호 등 비의미어로 간주되는 품사는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참 고맙습니다”라는 문장은 “참(Adverb)”은 제거되고 “고맙다(Adjective)”만 추출되도록 처리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감정 표현과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 핵심 어휘군만을 남기고, 분석 대상의 밀도를 높였다.

다만 일부 단어의 다의성이나 중의적 문맥 해석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경우 사전 기반 키워드 조합 방식(예: "참" + "태평하다")을 추가로 적용하여 분석의 정밀도를 보완하였다. 형태소 분석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이후 감정유형 태깅 단계에서 직접 활용되었다.

**2.3풍자 특화 감정유형 5가지 정의**

기존 감정 분석 연구는 주로 긍정(positive)과 부정(negative)의 이분법적 구도를 기반으로 감정 상태를 분류해왔다. 그러나 『태평천하』와 같은 풍자문학 작품은 이러한 단순한 감정 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다의적인 감정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작중 인물의 말투나 서술자의 어조는 겉보기에는 긍정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꼼, 조롱, 냉소 등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풍자문학에 특화된 감정 분석을 위해 다음의 5가지 감정유형을 정의하고, 각 유형별 키워드 사전을 수작업으로 구축하였다. 유형은 다음과 같다:

**풍자 표현 유형 및 예시**

|  |  |  |
| --- | --- | --- |
| **유형** | **설명** | **예시 키워드** |
| 반어 | 겉과 속 다른 비판적 표현 | 정말, 참, 과연 |
| 과장 | 사실을 크게 부풀린 표현 | 어마어마하다, 천하제일,크나크다 |
| 대조 | 대비를 통해  모순을 강조 | 그런데, 반대로 |
| 조롱 | 인물이나 상황을 비하 | 주책없다, 웃기고들 |
| 감탄 | 놀람이나 체념을 드러냄 | 허 참,에라 |

각 유형은 평균 50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하며, 키워드는 형태소 분석기의 stem 기준에 맞춰 정리되었다. 키워드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구어체의 표현 방식과 문장 내 구조적 패턴 또한 분석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풍자문학의 특성상 한 문장 안에 복수의 감정유형이 공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 태깅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다층적 감정 분류 기준은 이후 시점별 풍자 전략 분석의 기반이 되며, 문학적 해석과 정량적 감정 분류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2.4문장 단위 감정 태깅 및 분석 구조**

형태소 분석이 완료된 각 문장은 형태소 리스트 형태로 변환되었으며, 여기에 본 연구에서 정의한 다섯 가지 감정유형 기준(반어, 과장, 대조, 조롱, 감탄)을 적용하여 문장 단위 감정유형 태깅을 수행하였다.

감정유형 분류는 수작업으로 구축한 키워드 사전을 기반으로 하며, Python 기반의 Jupyter Notebook 환경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현되었다. 먼저 extract\_keywords() 함수를 통해 문장 내 포함된 감정 키워드를 추출한 뒤, tag\_emotion() 함수를 이용하여 해당 키워드가 속한 감정유형을 판별하였다. (예: extract\_keywords(문장) → [정말, 허참] → tag\_emotion → [반어, 감탄])

이 결과는 각 문장에 대해 “감정단어”와 “감정유형” 열로 저장되었으며, 하나의 문장에 복수의 감정유형이 공존할 경우 중복 태깅을 허용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은 3가지 감정유형이 중첩된다:

“그 돈장이란 말이 윤직원 영감한테는 저 히틀러라든지 하는 덕국 파락호와 다름없다.”

이 문장은 ‘히틀러’라는 극단적 비유와 ‘파락호’라는 조롱적 표현을 통해 현실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감정유형으로는 ‘조롱’, ‘과장’, ‘감탄’이 동시에 분류되었다.

태깅 결과는 시점별 감정 전략 비교에 활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csv 형식으로 저장되어 후속 시각화 및 통계 분석에 연동되었다. 이 구조는 전통적인 감정 분석 방법론을 풍자문학에 맞게 확장하여, 문학 텍스트의 감정 구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3.시점별 작가 풍자태도**

**3.1시점별 풍자 강도 및 전략 변화 해석**

문장번호를 기준으로 작품 전체를 4개 시점으로 구분하였다. 시점 1은 작품의 인물 및 배경 제시부, 시점 2는 과거 회상이 드러나는 구간, 시점 3은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사건 전개, 시점 4는 인물 몰락 및 결말부에 해당한다. 각 시점의 문장범위는 다음과 같다.

시점 1: 1–549번

시점 2: 550–1100번

시점 3: 1101–3654번

시점 4: 3655번 이후

완료된 데이터셋(태평천하\_감정유형태깅\_최종.csv)을 기반으로, 감정유형 열에 존재하는 중복 감정(쉼표로 구분된 다중 유형)을 분해하여 collections.Counter를 사용해 각 시점에서 감정유형별 빈도를 집계하였다. 이를 각 시점의 전체 문장 수로 나누어 비율(%)로 정규화하였고,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시각화되었다.

**스크린샷, 도표, 그래프,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시점별 감정유형 비율 분포**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점 1은 ‘반어’ 감정이 약 1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작가가 이 시점에서 주로 간접적이며 우회적인 풍자 전략을 구사했음을 시사한다. 시점 2에서는 ‘반어’의 비율이 다소 감소하고 ‘조롱’과 ‘과장’이 미세하게 증가하면서 풍자 강도의 직설화가 시작된다. 시점 3과 4에서는 다시 ‘반어’의 비중이 상승하는 한편, ‘조롱’과 ‘감탄’ 등의 감정유형도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정량적 분포 결과는 작가가 작품의 전개에 따라 감정 표현 방식과 풍자 전략을 유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유형 표현의 비율을 시점별로 비교함으로써, 문학 텍스트 내에서 감정 전략의 밀도와 방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계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3.2시점 1**

시점 1의 텍스트에서 단순 단어 단위가 아닌 문맥 기반 어구 단위를 분석하기 위해, 불용어 제거 및 2~3gram 기반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의미 단위 묶음(예: '윤직 영감', '되다 옵니')을 통해 당시 인물 묘사 및 표현 방식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선, 형태소 분석기 Okt를 사용하여 각 문장을 명사, 형용사, 동사 품사 기준으로 토큰화하였다. 이후 사전에 정의한 불용어 목록을 제거한 뒤, 단어들을 공백 기준으로 연결한 문서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여기에는 '하다', '되다', '이', '저', '그'와 같은 고빈도 기능어 및 조사, 접속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제된 텍스트를 바탕으로 TfidfVectorizer를 활용해 2~3단어 단위 n-gram 어구를 벡터화하였고, TF-IDF 점수 기준 상위 20개의 어구를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윤직 영감', '되다 옵니', '치다 들어오다', '도깨비 지다', '주저앉다 옵니' 등의 어구가 높은 가중치를 보였다. 이는 시점 1의 텍스트가 단순 인물 소개를 넘어, 등장인물의 화법이나 반복적인 어조, 그리고 상황 대조를 강조하는 데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되다 옵니', '치다 들어오다'와 같은 표현은 당대 구어체의 특징을 반영하며, '도깨비 지다', '죽다 넘어진다' 등은 과장된 인물 묘사를 통해 텍스트가 전반적으로 아이러니하고 희화적인 문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해당 분석은 감정유형 태깅과 병행하여, 문맥 단위 표현의 사용 빈도와 의미 중심 단위의 특징을 함께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3.2 시점 2**

시점 2 구간(문장 550~1100)은 과거회상이 집중된 구간으로, 인물 중심 대사와 시대상 인식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다. 해당 시점의 핵심 표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명사 중심 2~3gram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텍스트, 스크린샷, 그래프,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이번에는 고빈도 인물 지칭 표현(예: ‘윤직’, ‘영감’, ‘양복’, ‘신사’, ‘그놈’ 등)을 커스텀 불용어로 정의하여 제거하였다. 이 과정은 인물명 반복 노출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고, 실질적 정보 단위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처리된 문장을 바탕으로, TfidfVectorizer를 이용하여 2~3단어 단위 어구의 TF-IDF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때 최소 두 문장 이상에서 등장한 어구만을 포함하도록 하여 특이 단어나 단발성 표현을 제거하였다.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공자 맹자’, ‘수험 백영규’, ‘윤용규 총대’, ‘장의 선비’ 등 전통 질서나 유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명사 어구들이 높은 TF-IDF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시점 2는 단순한 전통 회고적 구간이 아닌, 주인공 윤직원이 화적패에 의해 부친을 잃었던 비극적 과거를 회상하는 구간으로, 실제 내용은 상실과 무력감, 그리고 정당화되지 않은 폭력에 대한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시점 1의 간접적 풍자와는 달리, 시점 2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과장되고 과거지향적인 언어 사용이 텍스트 전반을 구성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후 시점에서 이러한 자기 기만적 세계관이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로 전개된다.

**3.3 시점 3**

시점 3(문장 1101~3654)은 본격적인 사건 전개와 인물 간 갈등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작중 인물의 말투, 감정 표출, 풍자 강도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해당 시점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서술자의 진술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해 문장형태를 ‘서술’과 ‘대사로 구분한 후 품사 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문장형태 분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큰따옴표 또는 구어체 문장 종결 표현(예: '했어', '합네', '하오', '말이오', '하자구요' 등)을 포함하는 문장은 ‘대사’로 간주하였고, 나머지는 ‘서술’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문장 유형에 대해 Ok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여 문장별 품사를 추출하고, 빈도 기준 상위 10개 품사의 상대 비율을 계산하였다.

도표, 그래프, 라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사형 문장은 Noun(명사), Verb(동사), Josa(조사), Adjective(형용사)의 비중이 서술형보다 높았으며, 특히 Verb와 Josa의 비중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사 문장이 행동 중심, 감정 표현, 화자 간 상호작용 등 구어체적 특성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서술형 문장은 Punctuation(구두점), Suffix(접미사), Modifier(수식언)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문체상 서술자의 거리두기와 객관화된 관찰 서술이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분석을 통해 시점 3의 문장은 단순히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층위에서도 화자와 서술자의 역할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며, 작가는 이를 통해 인물의 의식과 사건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구분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점 3 내 문장들의 의미 기반 클러스터링을 수행하여, 유사 표현 그룹을 시각화하고 그 속성 차이를 관찰하였다.

우선 형태소 분석 및 불용어 제거 후 조합된 문장 텍스트(corpus)를 바탕으로 CountVectorizer를 적용하여 고빈도 단어 기반의 벡터 행렬을 구성하였다. 이후 t-SNE 기법을 이용해 고차원 벡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였고, KMeans 알고리즘을 활용해 4개의 군집(cluster)으로 분류하였다.

스크린샷,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결과, 전체 문장이 의미적으로 구분되는 네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며, 다수의 문장은 중심부에 밀집해 있는 반면 몇몇 문장은 극단적인 위치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t-SNE 1 축 기준 가장 외곽에 위치한 문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장이 확인되었다.

“재작년인가는 좀 그럴 듯한 과부 하나를 얻어 바로 집 옆집을 사가지고 치가를 시키면서 쑬쑬이 탈없이 1년 넘겨 이태 가까이 재미를 본 일이 있었읍니다.”

이 문장은 서술 문장이면서도 구어체가 강하게 반영된 회고적 진술로, 문장의 구조와 어휘 선택에서 일반적 텍스트와의 차별성이 크다. 서술이지만 구어체 문장이며(“쑬쑬이”, “재미를 본 일이 있었읍니다”)

구체적 시간(“재작년인가”)과 대명사 없는 상황설명 을 통해 익명화 된 조롱을 나타내며 정서가 거의 비꼼에 가까운 말투, 과거사 폭로하듯 묘사하는 성격을 가지는 가장 대표적이고 문학적으로도 독창적인 문장이다.

마지막으로

시점 3 전체 문장을 20문장 단위로 나누고 감정유형 분포를 분석한 결과,

반어와 대조는 시점 3의 주요 감정 전략으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2800번 이후 후반부에서 반어 표현이 급증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라인, 그래프, 도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장 3214는 다음과 같다.

“이번 아이는 서울 태생이라 그런지 좀더 영악스럽게 ‘이 영감이 왜 이 모양야?’”

이 문장은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풍자성이 직접 드러나는 사례로, 표면적으로는 관찰적 발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감’이라는 표현에 담긴 노인에 대한 경멸과, “왜 이 모양야?”라는 질문을 통한 직접적인 조롱이 내포되어 있다. 이는 반어와 조롱의 복합적 어조를 동시에 나타내며, 등장인물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작가의 태도 전환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문장은 시점 3의 후반부에서 반어가 단순한 표현 수단을 넘어, 인물 몰락과 함께 작가의 비판적 시선이 직접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정량·정성 분석 양측에서 확인시켜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능한다.

**3.4 시점 4**

시점 4(문장 3655~끝)는 『태평천하』의 결말부로, 윤직원 일가의 몰락과 그에 따른 정서적 붕괴, 그리고 작가의 최종적 풍자 메시지가 집약되는 구간이다. 이 시점에서 작가는 더 이상 체제를 풍자적으로 조롱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인물의 몰락을 담담하고 허무하게 서술하며 전작의 어조와는 차별화된 정서를 드러낸다.

감정유형 분석 결과, 시점 4에서는 ‘반어’의 비율이 다시 상승하면서도, ‘조롱’, ‘감탄’ 유형이 함께 분포하며 감정의 복합성과 해체 양상이 드러난다. 특히 '섭섭하고 허망했습니다', '기운도 없고', '헛된 세상'과 같은 표현들은 단순한 조소를 넘어서 현실에 대한 체념, 자기 모순의 인식이 결합된 복합 정서를 드러낸다.

예컨대, 마지막 문장인 “그러면서 속으로 오늘 구백사십오 원 번 것이 오십오 원 새끼까지 치어가지고 도로 나가는구나 생각하니, 매우 섭섭하고 허망했습니다.”는 풍자적 언어가 마무리되는 지점에서 작가가 현실의 공허함과 개인의 무력함을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준다. 여기에는 더 이상 조롱의 여지가 없는 절망감과, 제도의 붕괴 이후 남는 인간 실존에 대한 허무가 담겨 있다.

풍자문학의 한계를 인물의 몰락을 통해 스스로 드러내는 메타적 구성을 띠며, 『태평천하』 전체에서 감정 구조의 해체와 정서적 빈곤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점 4는 작가 채만식이 의도한 풍자의 궁극적 귀결, 즉 체제 풍자의 종결과 인간적 공허의 직면이라는 메시지를 정서적·서사적으로 집약하는 핵심 구간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4.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대상으로 하여, 시점별 정량적 감정 분석 및 문체 기반 분석을 통해 작가의 풍자 전략과 그 변화를 계량적으로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소 분석과 감정유형 태깅, TF-IDF 기반 핵심어 분석, 문장형태 구분, 클러스터링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작품을 다층적으로 해석하였다.

1시점에서는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구간으로, 반어와 대조를 중심으로 한 유화적 풍자 전략이 확인되었다. 반면, 2시점에서는 과거의 체제 자랑과 무력한 경험 회상을 통해 과장된 언어와 조롱 표현이 증가하면서 풍자 강도가 강화되었다. 3시점에서는 작중 사건이 본격화되며 화자와 인물 간 감정 표현이 뚜렷하게 분화되었고, 문장형태에 따른 품사 비율 분석을 통해 서술자와 등장인물 화법의 차이가 계량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미 기반 문장 클러스터링 분석과 시점별 감정유형 밀도 변화 분석을 통해, 작가의 비판 어조가 시점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직접화되고 조소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4시점은 작중 체제와 인물의 몰락을 차분히 묘사하는 구간으로, 반어 표현이 다시 상승하는 동시에 감탄과 허무의 정조가 결말부에 담담하게 이어지며 풍자 구조가 해체되는 지점을 보여주었다.

본 분석은 문학 작품을 정량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자, 계량 분석이 문학 내 서사적 흐름과 작가의 전략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감정유형의 구조적 변화와 문장 내 표현 방식의 계층 분석은, 풍자문학과 같이 다층적 정서가 존재하는 장르 해석에 있어 유효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2 결론 및 연구의 한계와 확장 가능성**

본 연구는 『태평천하』를 대상으로 문장 단위 감정유형 분석, 시점별 핵심어 추출, 문장형태 기반 품사 분석, 의미 클러스터링 등의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작가의 풍자 전략과 감정적 변화 흐름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 텍스트 내의 감정 구성과 언어적 전략이 시점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해체되는지를 계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한다.

첫째, 감정유형의 정의와 키워드 사전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수작업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맥에 따른 감정 다의성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텍스트 내 문장 길이와 구조, 표현 방식의 다양성이 단일 분석 틀에 의해 평면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셋째, 인물별 또는 담화 상황별 화법 차이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향후 담화 주체별 감정 흐름을 계량적으로 비교하는 분석으로 보완될 수 있다.

향후에는 대화체 분리, 담화 주체 인식, BERT 기반 감정 분류 모델 등을 활용하여 정밀도 높은 감정 태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현대 문학과의 비교, 매체 간 풍자 전략 비교 등으로도 확장 가능하다. 특히 시계열적 감정 변화 분석과 서사 전환점 감지 기술을 결합하면, 작가의 전략적 장치와 독자 반응 유도 메커니즘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정성적 문학 해석에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접목시킨 하나의 사례로서, 풍자문학 및 감정 기반 서사 해석에 있어 의미 있는 방법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1] 박수빈, “해방기 채만식 문학의 자기풍자와 시대감각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75호, pp.157-189, 2019.  
[2] 유은순, “영화 대사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등장인물의 감정과 서사간의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3, No.6, pp.95-107, 2013.  
[3] 김나영, “한국 대중 서사 기반 감성 분석을 위한 딥러닝 모델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4, pp.745-754, 2021.

[4] 오한나, and 남현주, “한국 사실주의 그림책에 나타난 감정 표현 특성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Vol.18, No.4, pp.183-206, 2017.

[5] 강우규, and 김바로, “고전소설에 대한 디지털 감정 분석방법론 탐색-<구운몽>을 대상으로,” *동아시아고대학*, Vol.56, pp.349-377, 2019.

[6] 정해빈, 장수지, and 배병철, “웹툰 원작 TV 드라마의 텍스트 기반 관객 감정 분석: <경이로운 소문>을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24, No.4, pp.755-764, 2023.

[7] 서혜진, 이종현, and 신정아, “딥러닝을 이용한 셰익스피어 작품의 감정 분석,” *영어학*, Vol.19, No.4, pp.817-836, 2019.

[8] 한경민, “코스톨라니 네 단편작품의 주인공 심리분석,” *외국문학연구*, Vol.43, pp.307-334, 2011.

[9] 김경애, and 구진희, “텍스트 마이닝과 감성 분석을 통한 연애관의 변화 연구: <공항가는 길>과 <이번 주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2, 2017.

[10] 반건우, 안소미, and 박소영,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제인 에어]의 토픽분석 및 감성분석,” *인문사회 21*, Vol.13, No.2, pp.2415-2427, 2022.